

“90년을 보내며” (극복해야 할 난국)



조석구 / 본회 이사
(주)인켈 사장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을 바라보는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전날 일어났던 일들이 꿈을 꾸 것처럼 아른하다.

불쑥 지나가는 시간이 그러하고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경제, 환경변화, 삭막한 사회 변화가 그러하다.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관심이 쏠림이 되고 있는 것은 단연 우루과이라운드(UR)가 아닌가 싶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혁과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열기와 관련된 현상들, 북방외교 등 다양한 채널에서 변화와 연계되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대응노력을 경주하는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즉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저임금과 대량생산체제를 기반으로 한 Low Cost제품의 수출전략은 국제무대에서 많은 통상 마찰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더우기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로 지적 소유권 보호확대, 첨단기술 이전기피 등 기술마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무역적자가

심화되는데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시한이 한달여 밖에 남지않은 시점에서 막바지에 접어든 협상에 온 국민의 관심이 UR에 쏠리고 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 또는 기술집약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종전의 노동집약 체제를 지양하고 전자부품 고집적화, 자동화 체제구축 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자체 기술력 확보를 통한 근본적 구조전환이 우리나라의 기술산업활성화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일 고급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산업구조조정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시장 개방을 한다면 우리 경제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경영인들은 이 난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제살 깎기식의 경쟁을 피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자국 산업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기이다.

또한 우리 경제를 짊어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바람직한 수입규모 및 내용까지도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로 국제화 시대를 맞아야하며 이미 처해진 상황에 대해 방관 및 흥분만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제력을 가지고 대처방안에 모든 기업 경영인 및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90년대를 시작하면서 국내 사회변화가 너무도 놀랄듯 정도로 급변한 것 같다.

요즈음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로 범죄의 형태에서 행위 및 방법에 이르기까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난폭해지면서 다양화되고 있다.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사건들속에서 “어쩌면 이 사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범죄의 자판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죄책감을 느껴보곤 한다.

우리들은 이런 모든 사회현상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 스스로의 탓으로 돌려 혼 혼한 인정이 감돌던 과거의 우리처럼.....

엇그제만 해도 겨울은 오지 않을듯 그렇게 포근하더니 외투깃을 세워야 할만큼 찬바람이 불고 서리맛이 미처 퇴색 하지 못한채 낙엽이 뿜군다.

떠나가는 '90년을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새기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가오는 멋진 '91년의 새 출발을 기약해본다.